

우린 행복 할거야!

만약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면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 5,6)



목표

세상에 있는 전세계 차원(전쟁과 테러) 지역적 차원 (집단 따돌림 현상과 범죄)의 폭력에 대한 현상들을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 폭력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으로 도시와 국가 혹은 포콜라레와 다른 운동에서 추진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보는 것 (알아보는 것).



어땠나요?

환영인사 단계에서 각자가 살았던 경험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 지난 마지막 모임에 있었던 있었던 목표를 기억하는 것.



모임을 여는 활동

비디오를 통해 비추어 보기
함께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영상: “it only takes one” (2’12)
<https://www.youtube.com/watch?v=Hh1ReLlnBng>

준비물: 비디오를 보기 위한 장비들, 각 그룹을 위한 종이와 펜

진행 방법: 비디오를 보기 전에 보조자는 청소년들을 작은 그룹들로 나눕니다. 각 그룹 안의 참여자들은 처음 이 질문에 비추어 답을 하도록 합니다. (10분):

-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이런 상황에서 너의 태도는 어떠하였는지요?

이 처음 순간이 지나고 난 후, “it only takes one” 이라는 비디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폭력의 피해자였던 소녀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화해를 향한 첫 걸음으로 용서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비디오의 마지막에서 각 그룹 안의 청소년들은 각자의 인상과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짓기 위해 각 그룹은 종이 위에 3열로 이루어진 표를 그려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열: 폭력의 상황들 (세계적, 지역적)
- 2열: 이미 존재하는 평화에 대한 기여
- 3열: 적어도 한가지 형태의 폭력에 반대하기 위해 어떠한 작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만일 전세계에 많은 사람이 작은 걸음을 할 수 있다면 평화의 정신을 퍼트려 나가는 것에 확산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그룹은 이 제안 중에 하나를 골라 답을 찾은 다음 모두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보아요

몇 년전에 나는 나의 삶과 자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어요. 나는 항상 똥보였고 많은 친구들이 나를 비웃으면서 내 이름을 나쁘게 바꾸어 부르고 몇 몇은 체육시간에 나를 특히 괴롭히곤 하였어요. 나는 아주 어려운 순간을 지났어요.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른이의 비웃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유일하지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내 친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혼자 아 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어요. 우리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신 종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했고, 선생님께서는 학교 운영자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을 다니면서 목표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 프로젝트의 첫 해는 성공적이었어요. 경험담들과 함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두번째 해에는 선생님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그룹은 늘어났고, 세번째 해에는 학교의 모든 반에 소개하기 위해 도착하였어요. 지금 우리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자신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학교 안에 저마다 다른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

고 각자가 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현실도 달랐어요. 많은 친구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 받았어요. 나는 그들 중 몇 몇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몰랐어요. 모두 같은 어려움을 살았던 것이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말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고 지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찾아와요.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친구들과 나쁜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들도 나를 안고 감사해했어요.

인간은 사랑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리의 프로젝트로 우리는 사랑을 가져가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또래 친구들이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게 노력하는데, 이



미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 세계와 문제들 안에서 이를 잊어 버린 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한 구석에 내버려두고 맙니다. “안녕!”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묻는 인사, 안아 주는 것과 같은 단순한 사랑의 행위들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나 카롤리나 아라우조 니콜레티 - 브라질)

우리는 행동할거야!
만약 진의로 악을 이기게 된다면...



이렇게 살아 보아요

우 리 아버지는 친척을 방문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가족 중에 아무도 아버지와 동반해드릴 수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떠나는 날에 나는 미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미사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강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나는 “나의 하느님, 저는 모두 당신의 것이예요. 이미 이 여행으로 나의 “네”를 드렸지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기에 없을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초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돌아오는 여행에서 정면

충돌로 인한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대개는 이런 사고는 치명적으로 생명을 위협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우리는 단지 몸에 작은 몇 개의 흠집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밤새 우리는 병원과 경찰서를 오갔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은 그 후 였어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은 편찮으신 할머니를 간호하러 갔고, 아빠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동차 때문에 바쁘셨어요. 나는 집에서 가장 숨겨진 방으로 갔어요, 먹기도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몇몇 친구들에게 집에 혼자라고 느껴지니 만약 집으로 찾아와 준다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하고 말했어요. 이 말은 나를 흔들어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끌어 안는 힘을 주었어요. 나는 다시 일어나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였어요. 아빠의 부상은 더 심했는데, 나는 아버지 다리 상처에 연고를 발라드렸고, 머리에 있는 파편을 떼어내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도록 노력하였어요. 나는 이러한 상황을 편찮으신 할머니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사고로 인해 충돌한 가족들에게

나누었어요, 그 들은 아직 병원에 있었어요. 지금 이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사고에 대해 사과하셨고 서로 화해하셨어요. 만약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내 위에 세우신 빛나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어요.
(T. 루마니아)



깊이 있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끼아라, 2월 3젠 대회에서
눈부신 인사를 통해 우리에게
성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 없이
함께 성인이 되는 것’. 제가
로마에 돌아갔을 때 저는 3
젠 대회에서 살았던 것과
반대되는 현실에 부딪혔어요.
집,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각
자가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끼아라, 나의 자리에서
당신이라면 (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
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있
어야만 한다고 말
씀하셨어요. -세
상의 한 가운데.

가정, 학교에-, 그러나 우리는 세
상의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
상을 이방인처럼 살아야만 해
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를 알고, 텔레비전 등등의 인간
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
리는 우리의 언어, 이상의 언어
를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그들
의 관습을 가지고 있지요.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것. 그러나 우
리는 우리의 관습을 가지고 있
지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
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
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세
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
나 우리는 이미 우리
의 세상이 있지요. 교
회, 특별히 우리 에게
는 그 교회의 한 부분
에 바로 마리아 사업회
가 있지요. 우리는 그 곳
에 항상 머물러야 해요.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영
혼으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들은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이방인
들이야. 나는 그들의 나

라에 속해 있지 않아. 나
의 나라는 교회이고, 사
업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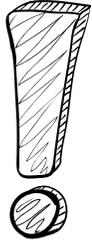
그러니 만약 네가 의심
이 든다면 왜 그렇게 생
각하는지 3젠 본부, 마
리아 사업회, 포콜라레
에 돌아가 너의 방법으
로 생각해보도록 하세
요. 너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요. 너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고, 천국의 대기
실에 있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대기실
에 있지요. 이해가 가나
요? 너 자신을 잃지 마
세요. 너도 다른 사람들
처럼 성인이 되어야
해요. ✨



끼아라 루빅,
마리노에서,
로마 지역 공동체
회원들에게.
2000년 4월 9일
'3젠들에게 1996-2002'
끼아라 74-75쪽

우리는 행동할꺼야!

만약 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면..



한 번 시도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과 부당한 상황들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 만은 없지요. 우리의 도시와 국가 혹은 다른 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또한 작은 몸짓으로 그들을 도움시다.

우리의 친구들과 주변의 아는 사람들도 공동선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LivingPeace, Run4unity)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모임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주위의 폭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해나가는 대화와 기여에 주목하여 봅시다.

보조자 공간



모임 후 평가

- 어떤 분위기 였나요? 다시 만나는 기쁨과 서로 간의 충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나요?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경청과 열린 나눔의 분위기가 있었나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활동의 제안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다음 모임을 위해, 우리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온유함을 지니는 것이 아주 어려운 특별한 환경에 대해 다룰 수 있었나요? 주제에 대해 결론이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모임에 무언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까요?
- 일치를 위한 청소년운동의 협조자들과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유대 활동을 함께 할 것을 정하여 봅시다. 만약 지역 공동체, 일치를 위한 젊은이, 다른 그룹과 조직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나을 것입니다.